

하나님이 이루신다

성경 창세기 41:46-57

신 67 쉼대 대화

일어날 때 아침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 되세요.

길을 갈 때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돌보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집에 있을 때 식사 중에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도록 해요.

누워 있을 때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찬양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은혜의 찬양 132장)

- 1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 2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 3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봅니다

1



2 찬송하는 소리 있어(찬송가 19장)

- 1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2



- 2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 3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후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말씀 읽기 창세기 41:46-57

- 46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삼십 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 47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 48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칠 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 두매
- 49 쌓아 둔 곡식이 바다 모래 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 50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 51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 52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 53 애굽 땅에 일곱 해 풍년이 그치고
- 54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 55 애굽 온 땅이 굶주리매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 56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새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 57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본문 배경

본문은 요셉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큰 재난을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 줍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7년의 풍년 동안 흉년에 대비하고, 이후 7년의 흉년 동안 구제 활동을 벌입니다. 요셉은 애굽 땅에 풍년이 들자 풍성하게 거둔 곡식을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7년의 풍년이 지나가고, 7년의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땅에 기근이 있었지만, 애굽에는 요셉이 흉년에 대비해 저장한 양식이 있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이 애굽으로 와서 양식을 샀고, 요셉은 곡식을 팔아 백성을 구제했습니다. 이는 요셉의 철저한 준비가 결실을 맺었음을 보여 줍니다. 요셉의 지혜로움과 하나님의 섭리로 애굽과 주변 나라들을 구한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요셉의 충성심과 지혜, 그리고 자기 백성을 언제나 돌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강조합니다.

말씀 암송

말씀 관찰

1 요셉이 7년의 풍년 동안 한 일은 무엇인가요?(47-49절)

답 흉년의 때를 준비했습니다.

해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예언하신 대로 애굽에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요셉은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은 세상이 사람의 노력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알고자 기도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깁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가 직책의 무게에 눌리거나 걱정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히셨다고 믿기에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능력 역시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오늘 주어진 삶에 충실하게 임하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2 7년의 풍년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53-57절)

답 하나님의 말씀대로 7년의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해설 흉년이 시작되었어도 요셉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7년의 풍년을 통해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셉뿐 아니라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바로와 그의 신하들도 이를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태양신과 나일강의 신을 섬기며 애굽이 그 우상의 보호 아래 있다고 믿어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 모든 신 위에 계신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나라를 치리하는 전권을 주고 맡겼고, 요셉이 하라는 대로 따랐습니다. 이는 곧 애굽인들이 요셉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권력자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말씀으로 그분의 뜻에 따라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씀 적용

1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사건을 떠올려 보고, 가족과 나눠 보세요.

2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가족과 나눠 보세요.

5-2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창세기 50장 20절

♩ = 134

작곡 송세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오십장 이십절 말씀 아멘



가정에배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은혜로 풍성히 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 이 세상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